

다른 환자와의 구분으로 감염 사실 은근 노출

글_ 이 세 현 · 감염인 / 기명

아프지 않은 사람이 환자의 고통을 미뤄 짐작할 수는 있으나 완전히 이해하기는 어렵다. 차별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피해 당사자가 아닐 경우 사소한 문제로 보이지만 당사자들에게는 커다란 상처가 될 수도 있다. 감염인·환자들에게는 병원 또한 그들에게 상처를 주는 장소라고 한다. 병원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충분히 바뀔 수 있는 차별 환경들을 이번호와 다음호 연달아 게재하여 차별의 벽들이 하나씩 무너지기를 기대한다. <편집자 주>

옛말에 '큰 병은 소문을 내라'는 말이 있다. '어디가 어떻게 아프다'라는 소문을 내고 다니다 보면 우연이든 필연이든 병에 대한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얻어들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게 되므로 완치로 가는 길이 빨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에이즈라는 질병은 누구에게 이야기를 할 수도 어디에 소문을 낼 수도 없는 병이다. 내가 처음 에이즈에 감염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도 그 어렵고 힘든 상황을 혼자서 극복해야 했다. 몇 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에이즈 감염인의 편견과 차별에 대해 문제는 줄어들기 보다는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 에이즈는 일상적인 당뇨나 고혈압과 같은 만성질환이 되었는데도 많은 사람들은 에이즈에 감염이 되었다고 하면 이해하기 보다는 비난하거나 극단적인 생각을 먼저 하는데 이제라도 에이즈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이해해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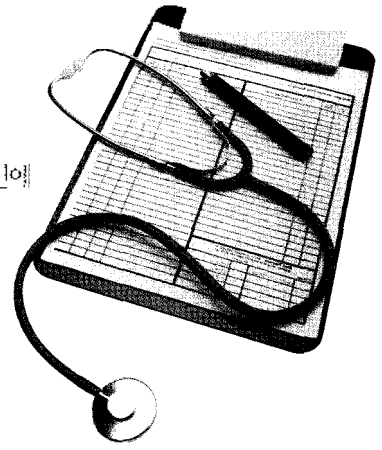
앞 사람의 HIV 진료내용이 다 들리는 진료실 큰소리로 HIV를 외치는 직원들

병원 진료를 받게 되었을 때 일반 환자와는 달리 조금은 특별한 대우를 받게 된다. 자신의 신분노출 문제 등으로 인해 부당하고 억울하지만 참고 견

야 한다. 감염된 것만으로도 억울하고 힘이 드는데 병원에서 이런 경우 이중 삼중으로 괴롭히는 것이니 개선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병원에 따라 다르겠지만 진료실에 한 명이 더 들어와 대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의 사람의 대화 내용을 귀머거리가 아니라면 그 대화를 듣게 되고 이로 인해 그 사람이 감염인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야 개인의 사생활과 질병에 대한 비밀보장을 받을 수 있겠는가? 감염사실을 타인에게 알릴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런 경우 어떤가? 타인에게 공개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아닌가? 감염내과는 감염인만이 진료를 받는 곳이 아니며 감염질환이 의심되는 사람들도 진료를 받는 곳이므로 조속히 개선을 해야 할 부분이다.

S대학병원 응급실이나 병실을 이용한 사람들은 공감할 이야기다. 응급실과 병실에서는 감염인에게는 빨간 스티커를 부착하여 다른 환자와 다르다는 것을 구분하고 있는데 병문안을 왔던 보호자나 다른 환자들이 보았을 때 의문을 가지게 될 것이다. 혹시라도 직원에게 물어보았을 때 질병에 대

병실에서는 감염인의 식사도 특별하다. 먹고 난 후에는 폐기물 봉투에 싸서 내놓아야 하며 환의를 비롯, 모든 물품에 대해서도 다른 환자의 것과는 섞이면 안 된다. 디지털 체온계를 따로 구입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로 일반 환자보다 감염인에 대한 차별로 개선이 되어야 할 사항들이다. 병원 직원들에 대한 정기교육을 통하여 감염인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없애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한 노출의 위험성이 충분히 존재할 수 있으며 감염인에 대한 엄연한 차별이다. 병원에서는 직원들이 쉽게 구분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변명에 불과하다.

그 외에도 응급실에서는 “이 사람 HIV인데요, 어떻게 해야죠?” 큰소리로 다른 직원에게 물어볼 때 당사자는 참기가 딱히 말이나 나오지 않고 주의의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된다. 그리고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이상한 눈초리에 쥐구멍이라고 있다면 피하고 싶은 심정 누가 알아주랴! 직원에게 “병명을 그렇게 크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요?”라고 하자 “HIV라고 하면 사람들이 모르는데요.” 더 당황스럽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에이즈와 HIV를 구별할 줄 안다고 이야기해주자, 이번에는 전문용어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이렇게 하면 되죠?”라고 한다. 어찌하랴 웃고 넘기지만 씁쓸하다.

특별대우(?)로 드러나는 감염사실들

에이즈 감염인은 다른 일반 환자와 다를 바 없다. 감염성 기회질환이 없다면 꼭 격리실이 아닌 일반 병실에 입원할 수도 있는데

꼭 격리실을 고집하는 경우는 왜인가? 만성질환으로 분류만 해놓고 말뿐인 것이다. 일반내과 병동에 격리실이 섞여 있어 에이즈 감염인이 입원한 사실을 모를 것이라 생각하지만 잘못된 생각이다. 사람들은 격리실에 입원한 사람들이 에이즈 감염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저기 입원한 사람들이 에이즈 감염인이라고 하던데, 사실인가요?”라고. 병실에서는 감염인의 식사도 특별하다. 먹고 난 후에는 폐기물 봉투에 싸서 내놓아야 하며 환의를 비롯, 모든 물품에 대해서도 다른 환자의 것과는 섞이면 안 된다. 디지털 체온계를 따로 구입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로 일반 환자보다 감염인에 대한 차별로 개선이 되어야 할 사항들이다. 병원 직원들에 대한 정기교육을 통하여 감염인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없애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에이즈 숨기고 진료받을 수밖에 없는 1차 진료기관들

주위에는 수많은 1차 진료기관 병의원들이 있지만 감염인에게에는 너무나 문턱이 높아 이용하고 싶어도 감염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용할 수 없다. 이런 경우 많은 감염인이 자신의 감염사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

1차 진료기관들은 첫째는 의료인이 진료행위중 감염의 위험성이 있으며, 둘째는 감염인이 치료를 받는다고 알려지면 병원운영에 차질이 생기며, 셋째는 일반 환자에 비해 소득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진료를 꺼린다.

감염인들에게 문제가 되는 항문외과, 치과, 피부과 등 큰 병원에 가지 않아도 충분히 치료가 될 질환들은 1차 진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가 있어야 할 것이다. 병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감염이 되신 분들도 병원에서 차별이나 부당한 행위라고 생각하면 당당하게 권리를 요구하였으면 한다.